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내려 놓아라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모든 것의 근원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용마루와 대들보와 서까래와 기둥이야.”
학승이 말했다. “학인은 모르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두공(斗拱)은 차수(叉手)하고 있지만 알지는 못해.”

問 如何是萬法之源 師云 棟梁椽柱 云學人不會 師云 拱斗叉手不會

용마루와 대들보와 서까래와 기둥은 집을 짓는데 없어서 안 될 중요한 것들이다. 이것들은 집을 대표한다. 조주 스님이 용마루와 대들보와 서까래와 기둥이 근원이라고 말한 것은 집의 중심이 이들인듯 만물이 그 중심이 되는 것이 근원이라고 비유해서 말한 것이다.

그러면 만물의 중심은 무엇일까? 한 마디로 말하자면 도(道)이다. 그러면 도는 무엇인가? 한 마디로 말하자면 만물이다. 그러므로 조주 스님이 집이 근원이라고 말한 것을 단순히 비유라고 치부할 것만은 아니다. 집도 도이기 때문이다. 집은 사람이 기거하고 있는 곳이다. 사람은 집에서 자고, 휴식하고, 밥을 먹는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한다. 사람은 집을 의지해서 만사를 지으므로 집은 삶의 근원이다.

사람은 몸과 마음의 결합체이다. 몸이 없으면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몸이 편안하면 마음도 편안해진다. 그

러므로 마음을 잘 쓰려면 몸을 잘 보호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몸은 마음이 의지하는 집이다. 집이 없으면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음은 우주의 주인이다. 그러나 몸이 없으면 마음의 존재는 없다. 몸과 마음은 하나이다. 만약 몸과 마음을 중시하고 마음을 방치한다면 도가 없다. 몸을 방치하고 마음을 중시해도 역시 도는 없다. 몸과 마음을 같이 닦는 것이 수행이다. 마음의 근원은 몸이고 몸의 근원은 집이다. 몸이 의지하는 집은 만물의 근원이다.

지붕을 받쳐주는 긴 가로 목을 대들보라고 한다. 이 대들보를 수직으로 받쳐 들고 있는(佛) 4각으로 된 작은 조각나무가 있는데, 마치 양 손목을 붙이고 양손으로 대들보를 받치고 있는 모양이다. 이것이 두공(斗)이다. 혹은 마루의 가로 목을 세로로 받쳐 들고 있는 나무를 두공이라고도 한다. 두공은 중요한 일을 하지만, 자신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모르는 것이 정상이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그 일을 하고 있는 줄 몰라야 진정한 선(善)이 된다. 우주 만물은 서로서로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학승이 물었다.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내려놓아라.”

問 一物不將來時如何 師云 放下著
방하착에 대한 법문이다. 이 법문은 유명한 법문이다.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에 아무것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실은 형체가 없고 이름이 없다. 따라서 무심(無念無心)이 진실에 합당한 마음이고 무심하면 행복에 이른다.

학인이 대무심을 얻어 한 물건도 세우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가 물은 것이다. 그러자 조주 선사는 뜬금없이 내려놓으라고 말했다.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내려놓으라니, 도대체 무엇을 내려놓으라는 것인가?

선(禪)을 말하는데 말이나 명자(名字)를 빌려서 표현하면 즉시 틀리겠다. 말이나 명자가 진실은 아니기 때문이다. 말과 명자를 떠나서 진실 그 자체를 보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과에 대한 설명보다는 사과 맛을 보여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행동으로 보인다 하여도 틀린다. 행동 역시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행동이 진실의 뜻을 담고 있을 때는 가능하다.

한 물건도 내세우지 않는다면, 말할 필요도 없고, 그 경계가 어떠한가 질문할 것도 없어야 한다. 한 물건도 없다면서 어찌 의심하는 그 높은 있던 말인가. 말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러니 그것조차도 내려놓아라. 그래야 정말 한 물건도 세우지 않는 것이니라 라는 뜻이다.

오동회원 엄양장에서 이 대답이 나오는데 엄양장에서는 조주 선사 내려놓으라는 대답이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에 학인이 “나에게 한 물건도 없는데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고 반문하였고, 조주 선사는 이어서 “그러면 짚어지고 가거라.” 라고 말했다고 한다.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㉔



사람은 걸음으로 드러난 모양으로는 쉽게 알 수 없다

〈상웃따 니까야〉

어느 때 빠세나디 왕이 부처님을 방문하여 인사를 드리고 한쪽에 앉았다. 마침 그곳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한 무리의 수행자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머리를 특이하게 땅아서 묶은 고행자들, 하늘을 웃으며 삼은 나체수행자들, 한 벌 옷으로 평생을 사는 사람들,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방랑수행자들 --- 그들은 한결 같이 더부룩한 거드랑이 털에, 긴 손톱에, 긴 몸의 털을 하고 있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 이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그들은 과연 윤리적 덕목들을 잘 지켜며 살고 있을까? 마음 속으로 청정할까? 불굴의 정신을 갖고 있을까? 늘 궁극해 진다. 빠세나디왕 역시 나와 같았다. 그들이 다 지나가자, 잠았던 의문들을 풀어놓는다. “부처님, 저들은 아라한들입니까? 또는 아라한의 길에 들어선 이들입니까?”

부처님께서서는 그들의 정체를 한 눈에 파악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이다, 아니면 아니다”를 일도양단(一刀兩斷) 대답해 주실 것이다. 빠세나디 왕은 기대를 하면서 여쭙었다. 그러나 웬일인가. 부처님은 그렇게 답하지 않으신다.

“대왕님, 세속에 사는 사람이 그것을 안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가 계행을 지니고 있는지는 함께 살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청정한 지는 함께 대화를 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불굴의 정신이 있는지는 역경에 처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지혜가 있는지는 토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에는 알 수 없고 긴 시간이 지난 후에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 깊어야 알 수 있지 주의 깊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지혜로워야 알 수 있지 우둔하면 알 수 없습니다.”

요컨대 높은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으로서도 그들의 외양만 보고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함께 살아보면서 오래 겪어보아야 감히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이 부처님의 입장이다. 물론 이 말씀 뒤에 나오는 시를 통해서 부처님은, 그렇게 “사람은 걸음으로 드러난 모양으로는 쉽게 알 수 없고 / 잠깐 슬쩍 보아서 는 또한 믿을 수가 없네”라고 하셨다. 걸모습만으로 수행자라 자칭하는 사람들, 성자라 자칭하는 사람들을 쉽게 믿

지 말라는 뜻이 그 원래의 의미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나는 걸모양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우리의 외관주의(lookism)에 대한 경계(警戒)로도 해석해 보고자 한다.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의 크기다. 일본에 가면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것은 주먹가에 세워둔 자동차의 크기다.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 중에서 중형차를 타야 할 분도 계시다. 물론 중형차를 타야 할 분도 계시다. 그리고 그런 문제는 자유다. 우리 집에는 차가 없는데, 그렇기에 질투하는 말도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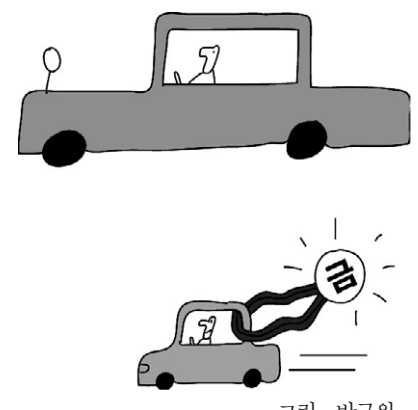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요점은 작은 차를 타자, 큰 차를 타는 사치(?)에서 벗어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큰 차를 선호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잘못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 뿐이다. 작은 차를 타면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것, 아니 푸대접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큰 차를 선호하는 것은 ‘걸모양’에 떨어진 일임을 말하려는 것이다. 좀 푸대접을 받으면 또 어쩔까? 어차피 그가 본 것은 나의 걸모양일 뿐이고, 나는 결코 그런 걸모양으로는 알 수 없다.

진짜 재미있을 것 같다. 내가 만약 큰 차를 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차를 타고 다닌다면 말이다. 얼마나 신나는 일일까. 그러나 걸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러는데, 오해하지 말자. 걸모양은 진짜가 아니다. 가짜에 지나지 않는다.(본문의 인용은 일어 역편, <한문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민족사, 433-434쪽.)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주성원의
기초 교리 <25>

삼법인 · 사법인

우리가 알고 있는 제행무상(諸行無常) · 일체개고(一切皆苦) · 제법무아(諸法無我) · 열반적정(涅槃寂靜)의 네 항목은 초기불교시대부터 확립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다. 이 네 가지 항목을 묶어 사법인(四法印)이라 하고, 여기서 일체개고를 뺀 세 항목을 삼법인(三法印)이라고 부른다.

법인(法印)은 산스크리트어 다르모다나(dharmadāna)의 한역으로, 다르마(dharma)와 우다나(udāna)의 합성어를 한역한 말이다. 다르마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법(法), 가르침 등의 뜻이 있고, 우다나는 요목(要目), 총괄, 강요(綱要), 요약 등을 의미한다. 이는 산스크리트어 다르모다나를 ‘가르침의 증표’로 이해하고 ‘법인’으로 한역했다고 말할 수 있다.

삼법인과 사법인에 관한 각각의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때 삼법인이라 하고, 어느 때 사법인이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면으로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대략을 말하면 다음과 같다.

부처님이 열반에 든 후 불교교단은 생전의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해석을 놓고 견해를 달리해 분열하기 시작했다. 교단의 분열이 극에 달했을 때는 약 20여 개의 부파(部派)로

나뉘어 졌으며, 이 부파를 가리켜 소승불교라고 한다. 소승 불교의 각 교단은 자기들만의 시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재해석했는데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고 정의하는 과정을 제문분별(諸門分別)이라고 한다.

이 제문분별이 활발해지면서 교리체계도 점차 복잡해져 갔고, 이러한 시기를 불교의 아비달마(阿毘達磨; abhidharma)시대라고 부른다. 그러다보니 아비달마시대에 삼법인 · 사법인의 범위를 놓고 여러 부파가 다소 혼재된 기술을 남김으로써 명확히 언제부터 삼법인 · 사법인의 용어가 정착됐는지 불분명하게 됐다. 또 초기 불교 경전에서도 삼법인 · 사법인의 명확한 구분이 기술돼 있지 않고, 아비달마시대에 기록된 산스크리트 원전이 거의 소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한역 논서만으로는 연구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삼법인 · 사법인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립된 기록은 대승불교 시대에 들어와 대승불교 논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학자들 중에는 삼법인 · 사법인 용어의 정립은 초기불교시대에는 다소 불투명한 부분이 있고, 대승불교에 들어서서 확립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를 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 제행무

상 · 일체개고 · 제법무아 · 열반적정의 네 항목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자명하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단지 삼법인을 말할 때는 일체개고가 제외되고, 사법인을 말할 때는 일체개고를 포함시키는 규정이 언제 확립됐는지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했을 뿐이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원시경전에는 삼법인이나 사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으나 삼법인과 사법인의 구분이 생긴 견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일체개고를 뺀 나머지 세 항목만으로 삼법을 설명한 역사적 배경에는 사성제의 ‘고(苦)’를 비롯해 많은 경전에서 고에 대한 부처님의 설법이 빈번히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일체개고를 법인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제행무상 · 제법무아를 통해 일체개고를 유추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는 달리 사법인은 오온(五蘊) 등의 제법 속에서 ‘무상 · 고 · 무아’의 세 요소를 바르게 보고, 이러한 유휴법(有爲法)의 집착에서 벗어나야만 적멸열반(寂滅涅槃)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에 근거해 일체개고를 포함시켜 이상 네 개로 사법인이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용어의 문제가 아닌 부처님 가르침의 본뜻을 이해해 고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日 용곡대 불교학석사 · 前 본지기자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질할 때마다 한 알씩 깨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내 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

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꿸 때 되면 염주는 멀고 공덕이 높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안마들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1 염주세트키트: 108염주 (10mm) 마강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삼색, 코핀1개, 펜던트, 이부시개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혔을 염주는 준비물 중 이부시개로 해결합니다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 줍니다.



4 수직으로 나와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개의 줄을 빼냅니다.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헝겊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강염주로 통과시킵니다.



7 마강염주 염주를 통과 시킨 두 줄에 펜던트를 끼워서 다시 마강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8 이때 펜던트와 마강염주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의 마강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9 두 줄로 2회 앞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10 다시 매듭을 3번 헝겊조이면 됩니다.



11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라이더로 살짝 지지서 손으로 가볍게 눌러줍니다.



12 108염주 완성
심원스님특허출원 20-2011-0003592 20-2011-0004171 20-2011-0005556